

인천 문화, 아카이빙?

아카이브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쉬어 인천을 돌아봅니다.

그 많은 ~~상자~~
아카이브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여러분의 역사가
여태 잘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잠시만
기록이 '잘' 되고 있긴 한 거예요?

유용한
아카이브를
만든다면,

그래서 '아카이브' 그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죠?

광활한, 좁고
깊게 진동하는
아카이브

지금까지 아카이브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 보자고요!
이름하여, '아카이브-다시 쓰기'

9월 9일 인천 문화재단에서 열린 '아카이브를 다시 쓰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카이브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 문화재단의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아카이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카이브가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앞으로 아카이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카이브는 '기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전에도 기록은 존재했다. 그러나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아카이브는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카이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카이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현(Kim Jonghyun)

2021 000000 00
0000000 0000 000
000000. 00